발표구분 : 포스터, 연락처 : 031-290-0280 (e-mail : anos@korea.kr)

태백 구문소마을 장소마케팅을 위한 마을이미지 디자인 개발

Visual identity design for place marketing of Gumunso-village of Taebaek-si area, Gangwon-do province

안옥선*[1]· 김수현[2]· 정명철[2]· 이희철[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1]. 디자인이든[2]
Ahn, Ok Sun*[1] · Kim, Su Hyun[2] · Jeong, Myeong Cheol[2] · Lee, hee chul[2]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1], DesignEden[2]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장소 자산을 활용하는 장소마케팅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장소마케팅은 지역마케팅의 한 형태로 장소가 지니는 문화적 고유성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활성화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자원 중에서 설화, 전설, 지명유래 등 구전자원은 각 지역의 전통과 지리적 특성, 생활 경험 등이 전승되고 보완된 것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용가치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마을 활성화를 위한 장소마케팅 일환으로 마을 구전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마을과 차별화할 수 있는 마을 이미지를 개발하였다.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구문소 마을은 태백시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통지식자원을 채록한 결과 구문소마을 지명의 유래가 되고 있는 '구문소'와 관련된 전설이 많았다. 구문소(求門沼)는 구무소의 한자 표기로 구무는 구멍·굴의 고어이며. 높이 20~30여m, 넓이 30m정도이다. 구문소와 관련된 전설은 구문소가 뚫어지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싸리나무 전설, 백용과 청용의 전설, 하우씨(夏禹氏) 전설이 있으며 사랑과 관련된 비녀소 전설이 있고, 용궁과 관련된 전설이 있다. 이 중 용궁전설은 마을에서 살았던 엄종한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 엄씨 무덤이 실존하는 등 실증성이 있으며 엄씨가 용궁에서 가져온 떡이 굳어서 먹지 못하게 된 것을 버리지 않고 쌀독에 넣어 두었는데 이 때부터 쌀이 줄지 않게 되어 부자가 되었다는 흥미요소가 있다. 구문소 암벽에 오복동천(五福洞天)이란 글귀가 씌여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감록에는 "낙동강의 최상류로 올라가면 더 이상 길이 막혀 갈 수 없는 곳에 커다란 석문이 나오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사시사철 꽃이 피고 흉년이 없으며 병화가 없고 삼재가 들지 않는 오복동이란 이상향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용궁전설과 오복동이란 지명유래를 활용하여 마을의 네이밍을 '오복의 門을 구문소마을'로 정하고 구문소를 형상화하는 이미지와 결합하여 마을 그래픽모티브 기본형을 디자인 하였으며, 현수막, 티셔츠, 종이가방 등의 응용시안을 디자인하였고, 용을 형상화한 캐릭터와 쌀독, 백병석 등도 디자인하여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